

# “광주, 자동차 부품 재제조 시장 선점해야”

그린카진흥원서 기술세미나  
시장 규모 1조4000억원 예상  
“내연기관 종료 순환경제 도입”  
“온라인 등 판매방식 개선 필요”

자동차도시 광주에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자동차 재제조 부품이란 재활용가능한 자원을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와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는 30일 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박임호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장,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이사, 박성원 ㈜쿤텍 이사 등 자동차 재제조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박임호 회장은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 부품재제조혁신센터’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시와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는 30일 그린카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는 자동차 재제조(인증) 부품 및 판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정비와 폐차를 통해 수집된 자동차 부품을 수거·분류·분해해 재제조가 가능한 부품은 재제조 전문 생산업체에 보내 재생산 후 품질인증을 거쳐 판매하고, 고철 등은 자원으로 재활용한다.

재제조 부품 유통체계는 기존의 완성차 대리점을 통한 판매방식을 개선해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 공급체계를 구축, 판매가격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증을 거친 중고자동차의 수출을 통한 한

국자동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의 애프터마켓(After Market) 시장 규모를 약 8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일반수리를 통한 재제조 부품 시장이 약 6700억원(약 14%)이고, 인증을 통해 재제조가 활성화될 경우 보험수리 시장은 일반수리시장만큼 커져 약 1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준희 굿바이카 대표는 “전기차 폐차와 재제조·재활용 현황”에서 “2010년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전기차는

2023년까지 49만대가 보급됐다”며 “이에 따라 배터리와 전자부품이 15년이 지난 후 폐배터리 및 중고부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남 대표는 “폐배터리의 경우 전기적 위험성으로 절연처리 후 불연성·비전도성 재질로 개별 포장하거나 밀폐된 운반상자에 담아 이동해야 하는 탓에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장거리 운송이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국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점을 만들어 전기차 폐차 및 처리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또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구동모터를 활용해 펌프를 만든다거나 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고 연료전지를 사용해 수소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박성원 ㈜쿤텍 이사는 “자원순환에 따른 재제조 탄소배출 방안 도출”이라는 발표를 통해 “최근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제도 등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글로벌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기업은 다양한 규제들의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ESG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증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환경규제의 국내 기업 영향이 커지고 있어서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환경지표 중 탄소배출량 관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탈리아 토리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2045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내연기관 감축(종료)에 대비해 중고차의 부품 수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자동차 부품 재제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차가 2개 있는 국내 유일의 도시에서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 도입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여수유담호텔, 호국보훈의달 기념 이벤트

국가유공자 투숙객에 와인 제공

여수 유담마리나호텔&리조트는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국가 영웅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한 달 호텔을 예약한 투숙객 중 국가 유공자, 경찰, 소방관, 군인임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와인 1병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전 객실 오션뷰 테라스를 자랑하는 유담마리나호텔&리조트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권 1매, 주간 마리아 요트 투어 1인 티켓, 프리드링크 2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식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객실을 예약하면 1시간 무료 레이트 체크아웃이 적용되며 팻 객실 이용 시 전용 어메니티를 추가 증정한다.

최윤태 총지배인은 “매년 6월 지속적인 호국 보훈의 달 이벤트를 진행해 감사의 의미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 롯데온, 내달 9일까지 ‘롯데레드페스티벌’ 진행

뷰티·패션·가전·식품 등 최대 50%

롯데온이 오는 6월9일까지 롯데 유통군 통합 쇼핑 축제인 ‘롯데레드페스티벌’을 진행한다.

30일 롯데온에 따르면 ‘롯데레드페스티벌’은 뷰티, 패션, 가전, 식품 등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부의 상품을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롯데온은 인기 브랜드를 모아 ‘브랜드 판타지’ 행사를 진행한다. 키엘·에스티로더·폴로 랄프 로렌·나이키·헬렌카민스키·삼성전자 등 뷰티, 패션부터 가전, 식품까지 30여개 브랜드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럭셔리 뷰티 브랜드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에스티 로더를 비롯한 럭셔리 뷰티 브랜드를 모아 ‘엘가대전’을 진행한다. 최대 1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구

매 금액대별 오피포인트 최대 1만점을 적립해 준다.

여름 준비를 위한 패션 브랜드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게스’ 여름 신상품을 최대 30% 할인, ‘나이키’ 여름 신상품을 최대 35%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 준비를 위한 ‘크룩스’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헬렌카민스키’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유아동 패션으로 ‘블루독패밀리’의 여름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를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6월3일부터 9일까지는 각 계열사 상품을 롯데 단독 혜택으로 선보이는 ‘엘간 롯데’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롯데백화점·롯데마트·세븐일레븐·롯데시네마 등 10개 계열사가 참여하며 일자별로 인기 상품을 롯데온 단독 혜택으로 제안하고 계열사별 상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 현대·기아차, ‘E-GMP’ 택시 전기차 전환 앞장

최근 3년간 신규택시 30%  
아이오닉5·EV6 1·2위 기록

E-GMP 기반 전기차 출시 이후 전기차 택시 등록 대수가 13배 증가하는 등 택시 업계에 전기차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E-GMP 기반 전용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시장에 출시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국내 등록됐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된 택시는 11만1583대로 이중 전기차 택시가 약 30%(3만3400대)에 달한다.

E-GMP 출시 이전 3개년(2018년~2020년)간 신규 택시 중 전기차의 비중은

2.3%로 E-GMP 기반 전용 전기차 출시 후 약 13배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전기차 택시 등록된 차종은 아이오닉 5가 1만480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EV6가 7353대와 아이오닉 6가 3913대로 각각 2위,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기차 택시 78%가 E-GMP 기반 차종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택시기사 4명 중 3명꼴로 E-GMP 기반 전용 전기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아 니로 플러스 4237대, 니로 EV 2571대가 각각 3위, 5위에 올랐고,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446대이 6위로 뒤를 이었다. 내연기관 기반의 현대차·기아 전기차 또한 택시 업계로부터 다수 선택 받으며 준수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박소영 기자

## 삼성전자, 브라질서 ‘AI TV’ 핵심기술 선보

Neo QLED 8K·OLED 설명회

삼성전자는 지난 28일과 29일(현지시간) 양일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2024 중남미 테크세미나’를 열고 2024년형 Neo QLED 8K와 OLED 등 ‘AI TV’ 시대를 선도할 신제품과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브라질·멕시코·칠레·파나마 등 삼성전자 중남미 주요 법인들은 지난 4월부터 신제품 런칭 행사인 ‘Unbox & Discover’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2024년형 ‘AI TV’의 독보적인 기능들을 소개했다.

이번 중남미 테크세미나에서는 삼성전자 화질 전문가들이 중남미 주요 지역의

영상·음향 분야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2024년형 삼성 TV 신제품에 탑재된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직접 설명했다.

세부내용으로는 △‘NQ8 AI 3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2024년형 Neo QLED 8K의 뛰어난 화질 업스케일링 △‘AI 오토 게임모드’ 등 게임에 특화된 기능들을 탑재한 2024년형 Neo QLED △빛 반사 없이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는 2024년형 OLED △TV와 연결하면 더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뮤직 프레임’ 등 AI 기술로 향상된 시청 경험과 연결성을 강조했다.

2024년형 Neo QLED 8K는 전년 대비 8배 늘어난 512개의 신경망과 2배 빨라진 NPU를 적용한 AI 프로세서 NQ8 AI 3

세대를 탑재해 저화질 콘텐츠를 8K급 화질로 선명하게 바꿔준다. 또 미국 안전인증기관인 UL이 인증한 ‘OLED 글레어 프리(OLED Glare Free)’를 적용해 빛 반사 없이 색상의 정확도와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어 낮에도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2024년형 삼성 Neo QLED TV는 ‘AI 오토 게임모드’가 탑재돼 AI가 게임 장르를 인식해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구현한다.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은 원하는 사진을 넣어 스탠드 액자 또는 벽걸이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삼성 TV와 연결하면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박소영 기자